

# 광주 아파트 매매·전셋값 숨고르기

## 9월 이후 첫 하락...전세는 오름세 둔화 내년 대규모 분양 앞두고 관망세 돌아서

정부의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 지연과 내년 대규모 분양이 맞물리면서 광주지역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나타냈다. 아파트 전셋값은 수도권 및 타 광역시와 달리 오름세가 둔화하고 있다.

2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7%, 전세 가격은 0.20% 상승하며 매매가격은 12주 연속, 전세가격은 65주 연속 상승한 가운데 광주지역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02% 하락했다. 광주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지난 9월23일 이후 처음이다. 7월 한때 0.05%나 떨어지며 여름 두 달간 하락과 정체를 오가던 아파트 가격은 가을 이시철인 10월 초부터 상승세로 돌아섰으나 이번 주 들어 다시 꺾였다.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던 것은 내년 대규모 분양이 공급되면서 수요자들이 매매보다는 관망세에 접어들었다

는 분석이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내년 아파트 입주예정량 조사자료'에 따르면 광주지역 아파트 입주물량은 올해 9500가구에서 2014년에는 1만 4684가구로 54.5%(5184가구)나 증가할 예정이다. 1분기 2069가구를 시작으로, 2분기엔 가장 많은 7009가구가 입주한다. 3, 4분기에도 2769가구, 2837가구가 각각 예정돼 있다.

광주지역 아파트 전셋값은 겨울철 비이철을 앞두고 오름세가 다소 둔화됐다. 이번주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보다 0.06% 올라 지방 평균 0.14%에 못 미쳤다. 특히 대구나 경북, 충남 등이 혁신도시 등 개발 호재로 매달 상승세를 이어가며 전셋값 상승세를 이

끈 반면, 광주의 아파트 전셋값은 10월 말 0.13%로 반짝 상승했을 뿐, 지난 5월부터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다. 광산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의 물량이 많아 '숨고르기'를 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취득세 감면 등 부동산 법안 처리가 늦어진 것도 매매시장을 잠잠하게 만든 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파트 가격의 소폭 하락 분위기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며 "전셋값 상승은 꾸준하지만 상승폭이 줄었고 거래도 많지 않아 광주지역 부동산 시장이 정체 분위기를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상무역 100m...광주 최고의 입지

### 서구 마북동 '상무 SK VIEW' 376세대 일반분양

SK건설이 22일 견본주택 개관을 시작으로 광주시 서구 마북동의 '상무 SK VIEW(뷰)' 분양에 나선다. <조감도> 광우 마북·치평구역을 재개발한 상무 SK VIEW는 지하 2층·지상 16~20층 8개동 규모의 536세대로 구성됐다. 전체 일반분양 가구의 75%가 최근 인기인 전용면적 85㎡ 이하의 중소형으로 이뤄졌으며 59㎡ 77세대, 84㎡ 205세대, 114㎡ 94세대 등 376세대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사내버스와 나주·함평·영광 등 전남 지역을 오가는 농어촌버스까지 이용할 수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매우 편리하다. 단지 바로 앞 상무대로 건너편에서 시청 사이엔 업무시설과 상업시설 등이 빼곡히 들어서는 광주의 중심업무지구가 펼쳐진다. 또 상무초·중, 전남중·고를 비롯, 인근 상무지구에 학원가가 밀집돼 있어 최고의 교육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다.

차별화된 설계로 일조권을 높였고, 세대 위치에 따라 단지 남쪽과 동쪽에 각각 인접한 백석산과 운천저수지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점도 특징이다.

SK건설은 오는 2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7일 1·2순위, 28일 3순위 청약 실시한다. 입주는 2016년 1월 예정이며 3.3㎡당 분양가가 700만원 후반부터 평균 800만원대 초 중반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광주시 서구 마북동 168-63에 마련됐다. 문의(062-371-5511). /임동률기자 exian@

## 삼성전자 31분기 연속 세계 평판TV 시장 1위

삼성전자가 31분기 연속 전 세계 평판TV 시장 1위를 유지했다. 21일 시장조사기관인 디스플레이셔치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매출액 기준 세계 평판TV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25.5%를 기록하며 1위를 지켰다. LG전자가 14.7%로 2위를 차지했으며 일본 소니(7.5%), 중국 TCL(5.7%)과 스카이워스(5.6%)가 순위를 이었다.

삼성전자는 전체 평판TV 외에 LCD·LED·PDP·3D 등 부분별로도 24.1%, 24.3%, 47.5%, 28.0%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며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켰다. 이로써 올해까지 8년 연속 세계 TV 시장 1위 수성을 눈앞에 두게 됐다.

삼성전자는 북미, 구주, 중국에서의 지속적인 시장 점유율 성장이 두드러졌다면서 60인치 이상 초대형·프리미엄 제품 위주의 마케팅 전략이 주효했다고 평가했다. 4분기는 성수기인 연말 특수와 내년 열리는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 브라질 월드컵 축구대회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TV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삼성전자는 전망했다. /임동률기자 exian@



## 광주신세계 수공예품 기획전

송광윤(사진 왼쪽에서 두번째) 광주북구청장과 시민들이 21일 광주신세계 백화점 1층에서 개막한 광주 우수 수공예품 홍보 기획전 전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13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기획전은 수공예작가와 수공예 부문 신진 창업교육생들의 작품이 전시·판매되며 오는 25일까지 열린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글로벌 유통 빅바이어 56명 참가 구매상담

### 광주 '2013 코리아 그랜드소싱 페어' 대성황

광주에서 최초로 개최된 '2013 코리아 그랜드소싱 페어(Korea Grand Sourcing Fair)'에서 세계 바이어와 지역 중소기업 간 대규모 수출상담이 진행됐다.

21일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 본부에 따르면 광주·전남 중소기업청과 광주시·전남도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총 32개사, 56명의 글로벌 유통 빅바이어와 지역 중소기업 121개사가 참

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성푸드, 가보팜스, 대창식품, 성자농산, 동의나라 등 지역 식품업체 76개사와 DK산업, 태봉, 럭키산업, 성일이노텍 등 생활용품 45개 업체가 이날 해외 바이어와 수출상담을 가졌으며 해외 바이어들은 광주·전남의 친환경 식품과 기술경쟁력이 뛰어난 가정용 전자제품에 깊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행사는 무역협회가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글로벌 빅바이어를 초청해 개최하는 대규모 수출상담회로, 올해에는 행사 참가 바이어를 처음으로 광주로 초청, 지역 수출업체들의 수출 증진과 신시장 진출을 위한 대규모 수출 상담회를 개최했다.

해외에서는 전세계 1~3위 유통업체인 월마트, 까르푸, 테스코를 비롯해 중국 유통업체 2~4위인 바이리엔 그룹, 리엔화 슈퍼마켓, 우귀 슈퍼마켓 등이 참석, 다양한 구매 상담을 진행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가계빚 991조원 사상 최대 또 경신

### 3개월새 12조원 늘어

가계 빚이 3개월 사이에 12조원이 늘어 다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3분기 가계신용(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가계신용은 991조 7000억원으로 3개월 전보다 12조 1000억원 늘었다. 가계신용은 은행을 비롯한 각종 기관의 대출과 카드 외상구매인 '판매신용'을 합한 것으로, 전세보증금 등 개인 간 채무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가계부채의 수준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통계다. 가계신용은 작년 말 963조 8000억원에서 올해 3월 말 963조 1000억원으로 금융위기 이후 처음 수위를 낮췄다가 6월말 979조 6000억원 등 다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계신용의 부문별 추이를 보면 9월말 현재 가계대출(937조 9000억원)은 3개월 전보다 11조 6000억원 늘고 판매신용(53조 8000억원)은 5000억원 증가했다. 실제로 각종 연금 등 기타 금융

기관의 가계대출(265조 8000억원)은 6조원 늘어 전체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취급 기관의 가계대출(199조 3000억원)도 3조 6000억원 증가했다. 예금은행의 대출 잔액은 2조 1000억원 늘어난 472조 7000억원이다. 주택담보대출과 기타대출이 약 1조원씩 늘었다. 9월말 가계신용은 1년 전보다 5.4% 증가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연내 가계신용이 10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 내년 물가 상승폭 커진다 소비자물가 올보다 2배 상승 전망

소비자물가가 내년에는 상승폭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국제금융센터가 최근 집계한 10여개 투자은행(IB)의 소비자물가 전망치 평균은 올해는 1.3%에 불과하지만 내년에는 2.4%로 높아진다. 국제금융센터 관계자는 "대부분 투자은행은 전기료 인상 등까지 감안해 물가를 전망했다"고 전했다. 투자

은행별로는 노무라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2.6%로, 뱅크오브아메리카(BOA)는 2.8%로 상대적으로 더 높게 전망했다. 노무라의 권영선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의 디플레이션 우려는 과민 반응"이라면서 "소비자물가는 곧 바닥을 치고 올 내년 4분기에는 3% 수준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런 전망은 올해 저물가의 원인인 무상보육 확대 등 복지 정책에 의한 물가 하락 효과가 내년에는 사라지는 데다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도 꾸준히 높여준다는 것이다. 복지 정책에 의한 물가 하락 효과는 만 3~4세 보육료 지원 대상이 종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된 지난 3월 이후 0.36%포인트에 달했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1993.78 (-23.46)	▼ 코스닥지수 501.05 (-3.11)	▲ 금리 (국고채 3년) 2.98% (+0.02)	▲ 원·달러 환율 1062.90원 (+5.00)
-----------------------------	---------------------------	--------------------------------	-------------------------------

# 개업기념 특별 할인행사

돌·결혼·회갑·칠순·단체행사등  
**전통한복 맞춤형**

정성 가득한 마음과 세련되고 우아한 감각으로  
전통과 트렌드를 이끌어 갑니다.

**이지에우리** 맞춤형대여전문점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61-16번지 (금남로5가역 기업은행 옆 투레주루 골목) T.062-228-6330

국내개발 | 국내생산 특허 제 10-1171252호

NEW **soriQ** 소리큐 음성증폭기 S20  
제품 모델명 : S20, S22, ST33

✓TV시청할 때  
✓강의를 들을 때  
✓핸드폰 통화할 때  
✓대화·상담할 때

※본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소리큐 홍보대사 송해선생님

소리큐 광주 호남지사 | 062)227-1700 주소: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114-4 전남대학교병원 건너편, 본죽 2층